

건축계소식 / 99

해외잡지동향 / 104

세무안내 / 110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건축사자격시험
접수 마감

전국 5,935명 신청

오는 9월 29일(일) 실시 예정인 200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신청자가 총 5,935명으로 집계됐다. 우리협회가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올 해 건축사시험 응시 신청자는 시험장별로 서울권이 4,241명, 부산권이 1,066명, 광주권이 628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총 신청자 5,322명보다 61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구 전임회장 철탑산업
훈장, 신문섭 전임이사
국무총리상 수상

‘건설의 날’ 행사에서

지난 7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행사에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부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이의구(창건축) 전임회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신문섭(대명건축) 전임이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106명의 건설관련유공자가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2002 올해의 작가·승효상」전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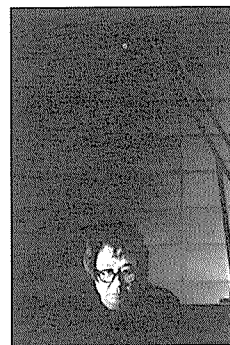


Photo by Choi Hang-Young

국립현대미술관(관장 吳光洙)은 2002년도 올해의 작가로 중견작가 부문에 건축가 승효상(본관), 원로작가 부문에 원로 서양화가 전혁림(분관)을 선정하였다.

『올해의 작가』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5년도부터 마련한 전시로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한국미술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품을 집중 전시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창작 의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가능성과 그간의 성과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의 작가』전은 학예연구직 전원으로 구성된 “올해의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학예직 전원이 개인별로 2인 이내의 작가를 추천하고 이를 종합하고 토론을 거듭하여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5년 전수천, 96년 윤정섭, 97년 황인기, 98년 권영우, 99년 김호석, 2000년 노상균과 이영배, 2001년 전광영(본관), 권옥연(분관)에 이어 2002년 <올해의 작가>로 원로작가 부문에 전 생애를 고향인 통영을 기반을 작품활동을 해 온 서양화가 전혁림(全赫林, 1916生)을, 그리고 중견중진작가부문에 빈자의 미학을 토대로 활약해온 건축가 승효

상(承孝相, 1952生)을 선정하였다. 그간의 『올해의 작가』가 회화, 조각, 설치 등에 국한되었던 반면, 2001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중견, 중진부문의 작가로 건축가 승효상을 선정하여 그의 작업을 통해 한국현대건축의 성과와 의미를 집중 조명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경제가 주도한 지난 시대에 그릇된 건축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은 있어도 건축은 없고, 건물은 있어도 건축문화는 없는 불임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21세기 삶의 터전으로서의 건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세기에 우리의 삶과 삶의 조건으로서의 기능하는 건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정립하는 메타문화로서의 건축의 역할을 반추하고 새로운 인식을 촉발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 전시제목 : 『올해의 작가 2002 - 승효상』전 『Artist of the year 2002 - Seung, H-Sang』
- 주제 : 『URBAN VOID』
- 전시기간 : 2002. 8. 28(수) ~ 10. 27(일), (61일간)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 주최 : 국립현대미술관

◇ 부대행사

- 강연
 - 제목 : '나의 건축세계 - 빈자의 미학에서 문화적 풍경까지'
 - 발표 : 승효상
 - 일시 :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5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강당
- 심포지움
 - 제목 : '새로운 시대 우리의 건축'
 - 진행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일시 :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6시
 - 장소 : 현대미술관 강당 강당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아라타 이소자키(건축가/일본), 창용허(건축가/중국),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건축가/스페인), 정준모(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한국)
- 작품설명회
- 일시 : 2002년 9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 설명자 : 담당 큐레이터(이추영)
- 대상자 : 일반 관람객
- 문의: 이로재 02-763-2010

부산국제설계경기 37개국 263여명 건축가 참가

세계적 높은 관심 불구 국내건축가 참여율 낮아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해운대 벅스코 일원에서 열릴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부산국제설계경기(Design of Busan Tower Complex)에 세계 유수의 건축가들이 참가를 신청해 건축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용두산공원에 있는 부산타워 재개발을 주제로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제설계경기는 8월 7일 현재 37개국 263여명의 전 세계 젊은 건축가들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참가국 별로 보면 미국 팀이 59팀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이 40팀, 프랑스가 26팀, 영국이 9팀, 이태리가 10팀, 네덜란드가 9팀, 오스트리아가 11팀 등 구미의 건축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일본의 건축가가 각각 6, 7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참가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와 이스라엘, 스페인, 브라질, 폴란드 등에서도 참가하고 있어 명실 공히 국제건축

가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제현상설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부산국제설계경기 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부경대 김기환교수)에서는 새 천년에 떠오르는 아시아의 항구도시 부산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많은 건축가들이 바라고 있다고 만족하면서도 한국 건축가들의 참석이 저조한데 대하여 아쉬워하고 있다. 기술분과위원회는 이 국제설계경기가 국내에서 UIA의 관리하에 개최된 아이디어현상설계로는 국내최초라는 점과 상금이 당선작이 3만불, 2등이 만불, 3등이 5천불이고 장려상 10점이 각 5백불이라는 아이디어 설계경기로는 국내 최고액이라는 점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 이후 향상된 국가 이미지의 도움으로 외국건축가들의 참가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건축가들은 참가가 극히 저조하여 모처럼 열리는 국제적 건축잔치에 외국인만이 참가하는 사태가 될까 우려되고 있다. 한국건축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내의 아심있는 젊은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현상설계를 기념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마리오 보타의 특별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다.

부산국제설계경기는 등록마감이 일시가 없고 제출마감 일시만 있다. 그러나 제출마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만하며, 은행입금완료와 확인작업, 등록번호부여, 프로그램 및 자료도서 발송 등의 시간이 1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8월 중에는 등록이 되어야 원활한 설계경기에 참가가 가능하다. 질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기존의 질의 응답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의: 051-620-1402 (사무국 김은정), <http://www.biacf.org>, 은행 등록 후에는 이메일 busanto@yahoo.com로 연락을 주어야 자료 발송이 된다.

2002 해양도시 부산의 거리 사진공모전

9월 13일 마감



2002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2002 해양도시 부산의 거리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작품내용 : 부산의 거리(건물, 일상, 가로경관 등)풍경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의 미발표 자유작)
- 출품 수 : 1인 4점 이내(흑백 2점, 컬러 2점 이내)
- 작품규격 : 흑백, 컬러 11" x 14" (규격의 심사 제외, 장정붙음, 제출 시 샘플(5" x 7")동봉)
- 접수마감 : 2002년 9월 13일(금) 17:00까지(당일 소인유효)
- 접수처 : 608-739 부산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 051-620-1400, FAX. 051-622-8340)
- 출품신청서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biacf.org)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참가비 없음)
- 작품전시 : 2002년 10월10일(목)-15일(화) BEXCO 전시장
- 시상식 : 2002년 전시기간 중 BEXCO 전시장(개별통지)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동상 2점 - 상패
 - 입선 100점 내외 - 상장
- 유의사항 :
 - 작품이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입상 및 입선작품의 판권은 당 위원회에 3년간 귀속함
 - 낙선작품의 반출은 전시장에서만 실시
 - 각종 공모전 및 촬영대회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

2002년 『시민에 의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9월 27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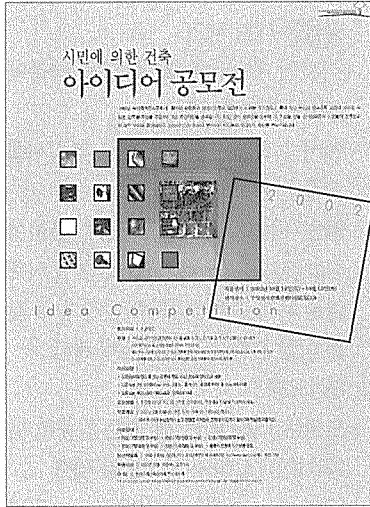


'2002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시환경과 특색 있는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조형물 포함)에 대한 조형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선별 전시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참가자격 : 제한 없음
- 공모내용
 - 주제 : 부산의 지역특성과 경관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조형물에 대한 제안 (각자의 Theme 및 성격을 작품에 간략히 표기 할 것)
 - 예시 : 해양 도시 부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건축물 계획, 공원/해변가/도시가로변에 상징성(Landmark)을 살릴 수 있는 도시조형물 계획, 기타,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은 집합건축물의 경관색채 계획 등
- 작성요령 :
 - 도면(로터링 잉크 펜 또는 컴퓨터 작업 가능), 모형의 양식으로 제출
 - 도면 size : A1 크기(841mm×594mm)의 5mm 폼보드 패널에 부착(1매 또는 2매 이내)
 - 모형 size : 900mm(W)×600mm(D)×임의(H) 이내
- 응모방법 : 방문접수(1인 또는 2인 1작품, 응모원서는 작품제출 당일 날 작성하여 제출)
- 작품제출 : 2002년 9월 27일(금), 오전10시~오후5시(마감시간 엄수) (우608-740)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5번지 동명대학 건축과 멀티그래픽실(정교관 3층)
- 시상안내 :
 - 대상 : 1명(상장 및 부상)
 - 금상 : 3명(상장 및 부상)
 - 은상 : 5명(상장 및 부상)
 - 동상 : 7명(상장 및 부상)
 - 입선 : 다수(상장 및 부상)
- ※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작품시상 및 전시 :
 - 당선작발표 : 2002년 10월 1일(화)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www.biacf.org)에서 확인 가능
 - 작품시상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 작품전시 : 2002년 10월 10일(목) ~10월 15일(화)
- 전시장소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BEXCO)
- 문의: 동명대학 건축과 (☎ 051-620~3500)



서울건축학교 2002 가을 정기 워크숍

2002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세계속으로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국내외 건축과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예비건축가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정기 워크숍과 2회의 계절 워크숍을 중심으로 우리시대에 필요한 담론을 제시하며, 세미나와 강좌 및 연구자료의 전시, 출판, 이벤트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건축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스튜디오

코디네이터에 의해 개설된 주제에 의해 sa 건축가 전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 스튜디오는 3-5명의 참가자로 구성되며 워크숍 결과물은 연 2회 정기간행물로 출간

참가자는 스튜디오 외에 강좌 및 세미나, 기행등 기간중 시행하는 프로그램

에 참가

◇ 참가대상

국내외 건축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설계사무소 경력자
참가신청/인터넷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 접수/ 8월 19일~9월 23일

◇ 일정/ 2002년 10월 7일~11월 30일 (8주)

◇ 프로그램

설계스튜디오, 강좌, 건축가세미나 등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 센터 교육생모집

- 제6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과정 (1년): 정원 30명, 9월 10일 입학, 선착순 마감

- 제4회 가구디자인 전문과정(1년): 정원 16명, 9월 11일 입학

- 제1기 나무가구교실(12주): 정원 16명, 9월 18일 개강

- 제16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12주): 정원 30여명, 9월 28일 개강, 선착순 마감

- 문의: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 (02-2006-6212

www.wooddesign.or.kr)

서상우교수 정년퇴임기념 국제학술대회

'도시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략과
뮤지엄 건축' 주제로

국민대학교 서상우교수 정년퇴임기념 국제학술대회가 '도시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략과 뮤지엄건축'을 주제로 오는 9월 27일(금)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경희궁내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국민 문화고양, 도시활성화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뮤지엄 콤플렉스(Museum Complex)가 절실해진 현재 세계적 경향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도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토론에는 고주석, 김명석, 김 원, 박길룡, 이범재 씨가 참여하며,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서상우(국민대 건축대학장, 한국박물관건축학회장)/도시의 문화풍경으로서의 뮤지엄 콤플렉스
- Barry Lord(Lord Inc.부사장)/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전략과 뮤지엄
- 김문환(서울대 미학과 교수, 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도시미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 Olivier Dugas(Ecole d'Architecture de Paris la Defense교수)/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략
- 김인수(환경조형그룹 그린바우 대표)/도시의 재생과 Schaumainkai 뮤지엄거리 조성
- Junzo Munemoto(교토대 교수)/새로운 뮤지엄의 도전과 영향-일본의 활성화 경우
- 문의: 02-394-1411

제10회 건축사진아카데미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암연구소에서는 제10회 건축사진강좌를 2002년 9월11일부터 11월27일까지 12주간 개최한다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인테리어촬영, 흑백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강의하며 함께 건축답사를 하며 실습지도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2002년 9월 11일-11월 27일 (12회)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8시30분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206-2, 청암연구소1층)

-참가인원: 12명 선착순

-참가비용: 30만원(학생은 20만원-추천서)

-신청방법: 온라인 입금후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됨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이메일 : imfoto@hanmail.net

-접수마감: 2002년 8월30일까지

-문의: 02-444-7088

〈내용〉

1- 건축을 보는 눈

2-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3- 빛과 공간의 이해

4-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5-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3시-8시)

6-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7- 각종 모형촬영 이론과 실습

8- 건축답사 촬영실기 (1박2일)

9- 흑백사진의 표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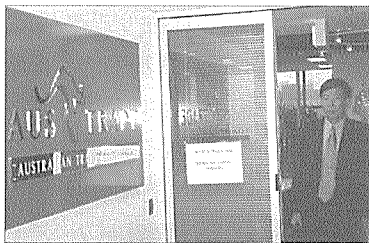
10-흑백사진 테크닉 실습-1

11-흑백사진 테크닉 실습-2

12-포트폴리오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 현대건축촬영과 건축답사 장소는 추후결정

KIBEX 2002 국제건축박람회, 호주국가관 참가



오는 12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에 호주 국가관을 개설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KIBEX사무국에서는 호주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호주의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퍼스 등을 방문하여 주정부 건축관련 담당자와 30여 건축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한국건설시장 동향 및 KIBEX2002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 기간동안 주정부와 METZ, BIG Country buildings, SAN-Q Systems, AUSTRAL 등의 관련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호주무역대표부와 협의 거쳐 호주국가관을 개설하여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KIBEX2002를 통하여 한국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문의: 02-708-4080, 이메일: info@kibex.com, 홈페이지: www.kibex.com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9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3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0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6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8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8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6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